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0월 14일(주일) 제1216호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

10월 24~26일 서빙고 본당, 주강사 데이비드 플랫 목사
참가자 모집 중 ... 홈페이지나 안내데스크, 당일등록 가능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성공'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주강사는 데이비드 플랫(맥린바이블교회 담임) 목사이다.

이번 부흥집회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10월 24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1', 저녁 '기만과 속임의 위험', 25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2', 저녁 '번영의 우상', 26일 오전 '교회 안에서의 성공 3', 저녁 '선교의 긴급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지난 2013년 온누리교회 부흥축제 강사로 초청된 적 있다. <래디컬>, <래디컬 투게더>, <카운터 컬처>, <팔로우미>(두란노)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서는 풍성한 특강과 간증도 이어진다. 김영애 권사(갈대상자)저

자와 이영표 집사(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간증하고, 모건 잭슨(FCBH 부회장), 박현우 대표(이노레드)가 특강을 한다. 영화 '파파 오랑후탄' 상영도 할 예정이다.

부흥축제 '바른성공'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까지 830여 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주일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오늘(14일)까지 등록하면 1만 원이고, 내일부터는 2만 원이다. 집회 당일등록도 가능하다.

부흥축제 본부 측은 성도들에게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성공에 대한 세속적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35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8 온누리부흥축제
바른성공

주강사
데이비드 플랫
맥린바이블교회 담임목사
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박사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총재
래디컬, 래디컬 투게더 저자

2018. 10. 24(수)~26(금)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간 중 김영애 권사 (갈대상자 저자), 이영표 집사 (KBS해설위원)
특 강 Morgan Jackson (FCBH 부회장), 박현우 대표 (이노레드), 파파 오랑후탄 (영화상영)
게스트 김영미 (소프라노), SDG 챔버 앙상블, CRUX (남성4중창)

회 비 사전 등록 1만원 (10/14까지) / 당일등록 2만원
입 금 하나은행 573-910016-41605 (예금주:온누리교회 부흥집회)
※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필히 확인 전화 바랍니다.
등 록 9월 30일(주일) 부터 본당로비
문 의 02-3215-3354 (저녁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수 있는 오픈집회입니다)

Onnuri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10월 28일까지 '2019 차세대 교사' 모집

차세대사역본부가 '2019 차세대 교사' 모집행사를 개최한다. 10월 21일과 28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된다. 현재 차세대 교사 최소 474명(서빙고 109명, 양재 98명, 도곡 35명, 부천 53명, 수원 45명, 대전 37명, 남양주 30명, 인천 32명, 강동 10명, 평택 5명, 양지 20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사랑부 교사는 최소 42명(서빙고 19명, 양재 5명, 부천 5명, 인천 3명, 강동 10명)이 필요하다. 사랑챔버(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 트럼펫)와 온사랑합창단(성악, 피아노, 작곡, 사회복지사)에서도 교사를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자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교사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0월 말과 11월에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로서 지원한 성도들은 '신입교사대학'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대학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8주 동안의 훈련과정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개 및 영역 소개,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등이 실시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사랑부 02-3215-3268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3,300명 참여

CGNTV의 5만 명 후원자 비전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지난 주일(7일) 열린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3,300명이 신규약정, 증액후원, 일시후원을 했다. 이에 따라 CGNTV 정기후원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김정선 성도(서초C공동체)는 "앞으로도 작은 교회,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GNTV 임직원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CGNTV가 한 영혼을 위한 방송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후원 동참을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끝났지만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홈페이지: <http://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한 달 앞으로

11월 13~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에서는 봉사자 B팀(11월 13~16일) 5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전화(02-749-1149)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집회를

한 달 앞두고 후쿠오카 현지에서는 집회준비가 한창이다. 79개 교회가 협력을 약속했고, 지난 1일부터 '러브소나타를 위한 40일 기도'를 시작했다. 내일(15일)은 실행위원들이 프레이즈랜드기도의집(이형석 선교사 담당)에 모여 기도를 할 예정이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온두라스(Honduras)에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성경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성경의 날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온두라스 성경의 날 기념행사는 유난히 뜻 깊었다. 성경의 날이 제정된 1987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외국팀이 주관해서 성경의 날 행사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이동규 장로(S브릿지공동체)가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두라스 ‘성경의 날’ 행사 주관한 ‘이동규 장로’



온두라스가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이동규 장로.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동규 장로(LOM LEADERS)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축매제와 태양광 발전기 등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규 장로는 지난 7년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래도 이동규 장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 인고의 시간 끝에 2016년 12월 온두라스에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보급하는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동규 장로는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최종 계약하면서 하나님께 “온두라스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빛도 없이 짐승처럼 살았는데
빛이 생기는 기적 같은 일...**

온두라스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준 마을을 방문했다. 이동규 장로를 보자마자 마을이장이 달려 나와 눈물부터 쏟았다.

“지금까지 산 속에서 빛도 없이 짐승처럼 살았는데 빛이 생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다. 온두라스 서북부지역 6개주에는 학교가 416개나 있는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밤만 되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동규 장로의 태양광 발전기 사업 덕분에 그 학교에 처음으로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마을이 변화됐다. 이동규 장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가 모니터를 기증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CGNTV 콘텐츠를 보여주면 전도 효과가 탁월할 것 같더라고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 마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적으로 가난해져있는 그들의 마음에 오염된 세상문화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복음과 기독교문화를 먼저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칠 교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학교 416곳에 성경을 가르칠 교사 한 명씩만 보내도 416명이 필요했다. 어떡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고문 변호사와 의논을 했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 고문 변호사가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에서도 그곳에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교사는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에서 담당하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대!!”

지난해 9월 마지막 주일이었다. 온두라스 사무실에 있던 이동규 장로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다. 그 다음 달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온두라스에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성경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알려졌다.

“바로 이거대!!”

이동규 장로가 무릎을 쳤다. 내년 성경의 날 행사에 훌륭한 강사를 추천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동의했다. 매월 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동규 장로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두라스 기독교협의회회장은 감사 추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8년 온두라스 성경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때부터 이동규 장로는 모든 일을 제쳐 두고 성경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조금씩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동규 장로는 온두라스 교단 총회까지 가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성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온두라스 대통령 초청 기도회에도 참석했다. 이동규 장로는 그 기도회에 참석한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그 기도회에서 온두라스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동규 장로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동규 장로의 지난 행보와 계획을 듣더니 단독 면담을 제안했다. 이동규 장로는 그 자리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며 계획을 설명했다. 그 모습을 보고 온두라스 대통령이 크게 감동했다.

“온두라스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돈만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신의 이익보다 온두라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칭찬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두라스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동규 장로도 온두라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에서는 어린 학생들도 갱단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변화와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동규 장로는 올해 성경의 날 주간에 중앙학교, 사울셀라야 공립학교, 아길라르 빠스 공립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평소에도 학교집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집회가 열린 학교들은 갱들의 영향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종교행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변화되어야 온두라스 전체가 변화된다고 확신했거든요.”

이동규 장로의 말대로 방황하는 학생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했다. 처음엔 학생들이 찬양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흠어져서 모이려고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집회에 참여하면 이중

에 갱단들이 큰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의 만지심을 갱단들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모두들 반응하기 시작하고 춤추고, 뛰기 시작하였다. 집회를 반대하던 교장도, 교사들도, 협의회 임원들도 모두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설교 내내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에 목말라 있었다. 결신하는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다.

중남미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서 집회가 13차례나 열렸다. 성경의 날이었던 30일 집회에는 무려 15만 명이 모여 예배드렸다. 이동규 장로 생애에서 가장 정신없는 일주일일 그렇게 흘러갔다.

“매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보니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동규 장로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다. 온두라스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중남미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온두라스의 진정한 변화와 복음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두라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법안은 분명히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수십만 권과 성경을 가르칠 교사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동규 장로는 온두라스에 온누리교회의 DNA인 큐티와 일대일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두라스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시키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빈민마을을 개조하는 사업, 방송을 통한 기독교 문화의 전파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선교적 자원을 갖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융합선교를 실시해서 온두라스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모델국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온누리교회에 그동안 많은 선교적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비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 다. 어떤 제도도, 조직도, 어떠한 사람들의 내구도 없는 교회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고 순수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참여가 점점 미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고, 운동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만 보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소위 ‘후기 기독교사회’, ‘포스트 크리스챤리티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지나갔다”고 절망 섞인 말을 하지만 9월 말에 온두라스에서 놀라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성경의 날’을 제정해서 예배하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존중하도록 하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면 위법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에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따르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쇠퇴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쇠퇴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 핍박 속에 있는 지역, 통제 속에 있는 지역에 번져나가는 하나님 생명의 운동력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식었다고 교회가 쇠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열정이 식고 자기 믿음이 식으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식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정과 순교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신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정권, 권력과 문화도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M 사이클’

때로 주님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운동력이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관찰한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는 이를 ‘3M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st Movement(운동)’입니다. 이 단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운동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nd Machine(기계)’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가는 것 같지만 영적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되어 버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3rd Monument(기념비)’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버리는 단계입니다. 이 사이클을 교회 유형에 적용해보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st Movement(운동)은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입니다. 단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사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요, 기쁨이요, 사명이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서 어떤 교회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조직화되고 체계화는 되었고, 또 어떤 교회는 형식과 제도, 문화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nd Machine(기계)으로 현상유지 교회(Maintenance church)입니다. 현상유지만 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며 돌아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머지않아 세 번째 단계인 3rd Monument(기념비)로 박물관 교회(Museum church)가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보면 그 교회의 역사를 먼저 자랑합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자랑합니다. 예배당에 걸린 그림이 몇 년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제한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잘 보존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의 전부라면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시작은 아주 좋은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씀운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형식과 문화와 제도에 사로잡혀서 결국 위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 다. 은밀한 금식,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은밀한 금식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과 삶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금식, 제도적 금식,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금식에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구별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날 교회가 왜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쇠퇴하고, 박물관이 되어버렸는지를 예방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운동력, 그 생명력의 근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결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부가 기뻐하는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19~20절).

교회의 운동력이 무엇입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구속되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마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결혼잔치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예식장에서 신부가 먼저 입장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정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신부는 하염없이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부가 기다리게 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만나는 기쁨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운동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중매시키는 것이 교회의 선교요, 전도요, 사역입니다. 만일 그분을 만난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운동력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결혼식을 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례를 하거나 참여하면서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양해가 됩니다. 결혼식에서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당해본 적이 없고, 야단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우울한 얼굴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쁜 얼굴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있을 때 땅 끝까지 갈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장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금식’이라고 써 붙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평소보다 좋고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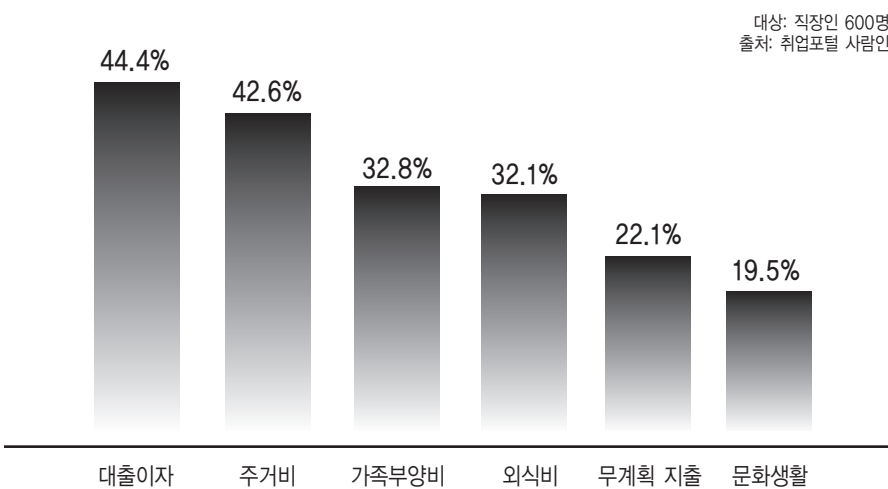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거나 관리 못해 부채 시달리는 경우 많아 ‘청지기 정신’으로 올바른 소비습관 기르고, 재정관리 해야

재정(돈)은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서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재정관을 확립하고, 물질을 적절하게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해도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할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재정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적절하고 올바른 재정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월급고개를 겪는 이유(중복 선택)



지난 3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2%나 된다.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작년과 비교하면 2.3%p나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을 집계한 43개 국가 중에서 중국(3.7%p)과 홍콩(3.5%p)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그 상승폭이 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염려를 넘어 우려가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부채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먹고 싶은 것은 꼭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잘못된 소비습관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 무척 안타깝다.

크리스천들은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재정관(청지기 의식)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월급고개를 아시나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8월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월급고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월급고개란 급여일 전에 월급을 모두 써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설문조사 참여자 65%가 월급고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월급고개를 겪는 이유는 ‘대출 이자’(44.4%), ‘월세 및 공과금 등 주거비’(42.6%), ‘가족 부양비’(32.8%), ‘외식비용’(32.1%) 등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계획 없이 지출해서’(22.1%),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비용이 많아서’(19.5%)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월급고개를 겪지 않는 직장인들은 ‘계획적인 소비생활’(54.5%)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소비활동 자제’(51.9%),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28.6%), ‘기호식품을 줄이거나 하지 않음’(2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활동과 더불어 빚을 지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소비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올바른 소비습관 만들기

충동적(감정) 소비가 과도한 지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소비문화에 젖어있다. 최근 SNS에 ‘탕진잼(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 ‘쓸쓸비용(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 쓰는 돈)’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활동을 하는 현대인들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6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감정 기반 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소비자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고 있었고, 개인의 감정상태가 충동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동적이긴 해도 무언가를 사고 나면 기분 좋아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를 차지했다. 충동구매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46.9%),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32%) 등의 순이었다.

계획적이지 않은 소비활동은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만든다. 계획하지 않은 소비활동으로 평균 활동비용을 초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2.5%나 됐다. 따라서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사거나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충동구매를 줄이고, 필요 없는 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재무관리’와 ‘소비습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재무관리’를 하는 것이다. 재무관리를 하면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관리를 통해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남은 금액은 저축하거나 투자를 하는 합리적인 경제습관을 기를 수 있다.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재무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적는다. 재무목표는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적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

지를 고려해서 적어야 한다. 재무관리에서 우선순위는 돈의 쓰임새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재무목표를 잘 세우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재정목표를 설정했다면 지출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 금리는 두려워하지만 할부 금리에는 무감각하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신경과학자 브라이언 넛슨 교수가 신용카드로 인한 과다지출의 원인을 뇌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 넛슨 교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인간의 뇌는 좋아하는 제품을 보는 순간 쾌락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행복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면 애매모호함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결제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중에 있는 돈이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의 횟수도 카드 결제일인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느끼면 된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주어진 금액 안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결제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만 살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작정 저축하는 것보다 재무목적에 맞게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장을 나눠 저축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

투자도 재정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단기에 큰 이익을 바라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바람직한 투자는 수입 안에서 소비하고 난 뒤에 여윌 돈으로 해야 한다.

전문가 기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영 장로
(강남C공동체,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

대다수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삶의 현장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천이 일상의 돈 관리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개인의 돈 관리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사회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크리스천이 금융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때 그 적절성, 투자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투자동기를 살펴본다. 이는 금융자산인 사채에 투자할 때 이자수취 허용의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제는 성경에 언급되에도 불구하고 중세까지만 이자수취가 금지되었을 뿐, 종교개혁 이후에는 허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자산인 주식인 경우에는 불로소득, 투자, 투기, 탐욕 등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균형 있는 삶을 필요로 한다. 균형 있는 삶이란 열정과 정성, 머리와 가슴, 속도와 방향, 깊이와 넓이의 유연한 하모니로 표현하고 싶다. 조직 관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Work and Life Balance'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전략으로 일과 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돈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돈 관리도 적절한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벌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또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크리스천은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최근 들어 교회의 재정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리스천의 사명이 강조된다. 사탄은 수시로 재물로 유혹하고 시험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재정관이 요구된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재물을 관리하여 타인에게 축복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Ron Blue(1994)에 따르면 성공은 위로부터 받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성취이고,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은 특정 목표와 연결돼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청지기로서 크리스천은 성공의 목표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세상은 보이는 세속적 시각을 중시하지만 크리스천은 미래를 보며 살아가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각도 중시한다.

주식투자는 신앙적으로 올바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식투자는 신앙적으로 올바를까? 크리스천의 재물관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다. John Wesley(2011)에 따르면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서 17개가 재물에 관한 것이며, 성경 전체에서 재물은 2,712번 언급된다. 이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3배, 기도라는 단어의 7배, 믿음이라는 단어의 8배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재물을 멀리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금리 속에서 수익이 높은 금융자산을 찾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되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여유 자금으로 저축 혹은 부동산이나 회사채 구입, 혹은 주식투자나 펀드가입 등은 정상적이다. 주식투자의 목적은 배당수익과 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낮은 은행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누리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투자는 배당금이나 장기적인 주가상승을 기

하여 투자했다면 주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주가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기에 주가에 따라 울고 웃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청지기로서 크리스천은 주식투자로 번 돈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대비해 투자동기와 번돈의 사전 재정계획을 하나님 앞에 밝혀야 한다.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고,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해 향후 하나님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 돈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투기는 일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확실한 투자는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번 돈은 소유가 아닌 섬김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돈과 정보가 함께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관리하라고 위탁하신다. 자본시장은 경제흐름 속에 시장원리가 반영되면서 건전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근원이며, 주식투자는 여유 자

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를 범한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주식투자를 2달 란트, 5달란트로 시작하여 각각 2달란트, 5달 란트를 더 얻었을 때 소유자채(4달란트, 10달 란트)에 의미를 둔다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 어렵다.

성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데 주식투자는 정당한 노동일까 아니면 투기일까? 투기는 기업분석 없이 근거 없는 심리에측이나 요행으로 시도하기에 노동이 아니지만, 투자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미래 수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치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기에 분명 노동이다. 기업 가치를 추정하고 분석하여 사업을 시도하는 창업과 글로벌 시대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많은 재택업무도 모두 노동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비전문인이 회사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지만, 회사는 비전문인을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는다. 주식투자자는 노동자보다 일하기 쉽지만 책임의 범위가 크고 다르다. 노동자가 실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주식투자자는 투자에 실패하면 투자금액만큼 책임을 지며, 부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행운이 아니라 신뢰할만한 노동이다.

투자의 핵심은 저평가된 우량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기업이 건전한 경영전략을 유지하면, 주가는 적정가로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실 때는 책임을 주시고, 필요한 곳에 건전하게 사용할길 원하신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기업의 주인이 되는데, 물론 건전하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세상의 권세는 돈과 사상으로 자본시장을 장악하고, 돈의 흐름은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 주식투자는 사회에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지만, 도박이 되는 이유는 시간과 위험보상에 대한 개념 없이 일확천금의 일탈행위로 투기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세력들이 그릇된 기업정보를 시장에 전달하여 나쁜 신호를 주면, 주가는 왜곡되고 기업은 자금압박에 시달린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건전한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금융자산의 하나인 주식투자의 원리가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는 맡겨진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 잉여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또한 투자의 동기로서 나눔과 더불어 복음의 제시가 필요하고, 투자자 개인의 위험성향에 맞추어 금융자산의 투자유형이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은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대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이지만, 투기는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노리고 매입하는 행위이다. 또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투자는 버블을 기대하는 것이기에 투기이지 투자는 아니다.

필요한 곳에 잉여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다. 투자자는 잉여재물의 효율성을 높여 투입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물론 주식투자는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동기는 사랑 안에서 나눔과 선교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잉여재물을 사용하여 주식투자로 번 돈을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해야 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증자를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돈을 조달하듯이, 크리스천 개인도 돈을 벌기 위해 저축을 하고 주식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내어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재물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것이다. 부정확한 내부정보와 탈세 없이 정당하게 투자하여 이익을 내야 한다. 투자대상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인으로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지노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회사를 결정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주식의 순기능으로 볼 때 주식은 투자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투자는 필요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자산증식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올바른지 여부이다.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

문제는 주식투자에 대한 욕심과 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가끔 주위에서 주식투자의 원금손실 등으로 경제적 고통과 이로 인해 사회적 윤리문제를 접하게 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보험 없이도 괜찮다면 그렇게 살면 되지만, 달란트와 열민나의 성경비유처럼 오히려 부지런히 준비하여 투자하는 청지기로 살면 된다. 다만, 주식투자의 폐해가 있기에 가능한 한, 장기투자나 분산투자 혹은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간접투자가 낫다. 사실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은 연 10%도 되지 않는다. 펀드매니저의 경우에도 연 15% 정도로 시장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사람은 존재보다 소유의 가

“열악한 군부대 교회를 돕시다!”

남양주 ‘진접다락방’과 ‘소망교회’의 아름다운 동역

남양주 온누리교회 C공동체 진접다락방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 지역 군부대에 있는 소망교회(55탄약대대, 담임 문정용 목사)와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오면서 품은 꿈이다. ‘군복음화’와 ‘청년복음화’를 위하여 소망교회와 계속 동역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다. 지금 55탄약대대 소망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가 너무 낡은 탓에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소망교회 문정용 목사와 남양주 온누리교회 C공동체 진접다락방 성도들이 백방으로 수소문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재건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나서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55탄약대대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소망교회는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즘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군교회와 군선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이 확대되고, 평일 일과시간 이후 자유 활동이 보장된다.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하는 장병들이 많아지면서 군부대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래도 대안은 있다. 평일에 사역하면 된다. 군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장병들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군교회와 군선교팀이 바로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장병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 평일 기도모임, 성경공부, 악기 교실 등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종목사나 외부 교회 사역팀이 매일 방문할 수는 없어도 군종병이나 간부를 통한 신앙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망교회 문정용 목사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소망교회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장병이 40여 명이다. 3년 전 주일예배 인원이 약 70~80명인 것에 비하면 꽤 많이 줄었다.

규정상 55탄약대대의 장병수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망교회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은 다른 군부대 교회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외출이나 외박으로 주말날 부대를 떠나는 장병과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 숫자가 비슷하다. 주일 하루 만의 예배나 활동으로는 꽤 많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소망교회 문정용 목사는 일주일에 3일(금-일)을 소망교회에 온다. 경기도 부천에서 남양주 진접까지 꽤 먼 거리지만 발걸음이 가볍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소망교회는 이번달 내 철거될 예정이다.

그래도 장병들에게 ‘내가 군대에서 힘들 때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 주더라’는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꽤 있어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진접다락방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부대에 남아 있는 장병들이 모두 교회에 올 정도니까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C공동체 진접다락방은 소망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다. 2016년부터 매년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장병들과 교제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아웃리치 외에도 순별로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섬기고 있다.

감당해야 할 장병이 배로 늘어나는데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소망교회는 1988년 지어졌다. 낡고 오래된 교회다. 그동안 크고 작은 보수를 했는데 소용이 없다. 지난해부터는 천장에서 비가 샀다. 수리를 해도 잠깐이었다. 올 여름 장마 이후에는 천장에 커다란 얼룩이 질 만큼 누수가 심했다. 누수로 인한 합선이나 화재가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군부대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장병들을 부대 인근교회로 보내거나 부대 식당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소망교회에 부임할 때도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른 군부대 교회에 자리가 나면 그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병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소망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 소망교회 같은 대대급 군부대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전후방 부대를 통합하면서 군부대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3년 내에 소망교회 인근 군부대 교회 5개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망교회가 있는 55탄약대대는 수송대대와 통합될 예정이다.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할 장병이 배로 늘어나는데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해 보직 이동을 앞둔 크리스천 사령관이 소망교회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소망교회는 이 지원금과 그동안 문정용 목사가 모은 후원금을 기반으로 재건축을 하려 한다. 이번 달에는 교회를 허물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재건축은 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조금씩 할 예정이다.

“저는 소망교회가 없어지면 집 가까운 김포나 부천 쪽 군부대 교회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곳에서 군대생활을 할 병사들에게 교회가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문정용 목사와 남양주 온누리교회 C공동체 진접다락방 성도들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 55탄약대대에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크리스천 장병들이 모여서 신앙과 비전을 나눌 장소와 공동체가 있다면 ‘군복음화’와 ‘청년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소망교회 문정용 목사와 남양주 진접다락방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에 동참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문의: 이진택 다락방장 010-9191-0639

후원: 국민은행 546537-04-002793

군인소망교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정용 목사
(55탄약대대 소망교회)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내각리에 소재한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55탄약대대 소망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 문정용 목사입니다. 소망교회 장병들은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는 천장과 무더운 실내에서, 겨울에는 단열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예

배드리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로부터 예배당이 너무 노후해서 더 이상의 보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재건축을 위한 건적을 받아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염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부대에 교회 보수공사 예산신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예산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차 요청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군선교는 마지막 보루

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행히 크리스천 사령관님이 교회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변 교회와 지인 목사님들에게 모금을 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선교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장병들 중에도 주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군선교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낡고 초라해서 장병들이 기

피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교회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으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장병들이 전역하고 지역 사회와 교회에 더해진다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장병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주시요.

한 영혼 구원하고, 재범률 낮추고

33년 째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새사람사역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 있다. 33년 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회선교부 소속 ‘새사람사역팀’이다. 재소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삶이 변화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영혼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더불어 재범률을 확연히 낮출 수 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곧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을 구원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새사람사역팀이 재소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결혼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 17명에게 사탕가행세를 하면서 약 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기죄로만 14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A씨 사례처럼 재범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률이 1년 이내 7.8%(약 2115명), 2년 이내 18.4%(약 4070명), 3년 이내 24.7%(약 5463명)나 됐다. 2015년 1년 이내 재범률이 5.3%(약 1221명)인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나마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수감자 재범률은 현저히 낮다. ‘민영교도소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이 3.36%로 전국 교정시설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당시 전국 33개 국영교도소의 5년간 재범률이 22.2%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다. 무려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망교도소에서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복음만이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어두운 과거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성공

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1986년 1월부터 재소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온누리교회 창립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재소자들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더 많은 재소자들이 새 삶을 사는 것이 새사람사역팀의 존재 이유이자 비전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지역과 나이를 막론하고 재소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현재 남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 의정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천안교도소, 화성교도소, 안양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월교도소에서 실시한 일대일 제자양육의 호응이 뜨거워 지난달부터 또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예배, 말씀, 후원, 출소자 사역이 그것이다.

‘예배사역’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있는 7개 교도소와 2개 구치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 상황에 따라 연간 1~4회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씀사역’에는 ‘자매결연 및 멘토링사역’, ‘QT사역’, ‘집중인성교육’, ‘구역장 교육’이 있다. 자매결연 및 멘토링사역은 여주교도소, 여주 소망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재소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핵

심만을 짊어주고, 동반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QT사역은 <생명의 삶>으로 QT제미나를 열고, 말씀을 나누면서 재소자들 스스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돕고 있다. 서울구치소 연 1회(8주), 여주교도소 월 1회, 의정부교도소 월 2회 진행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매년 2회씩 6개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말씀사역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BEE 세미나 등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고, 재소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돕고 있다.

구역장 교육은 여주교도소 재소자들이 그 대상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구역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후원사역’은 재소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적(생명의 삶, 성경 등)과 예배 물품, 기독교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재정을 후원하는 사역이다.

‘출소자사역’은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외에도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이닝글로리에서 정기기도모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역의 효율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수련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간증

“나에게도 사명이 생겼다”

나는 세상 유혹에 매우 약했다.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정도였다. 그런 내가 BEE KOREA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권사님의 사랑과 헌신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출소하면 교회도 다니고 구역예배도 드리려

새사람사역팀에서 재소자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3명과 찬양 인도자 1명이 필요하다.

최주관 장로(새사람사역 담당)는 “재소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면서 “한 영혼이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사회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백종신 집사 010-3625-9266

재소자를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1. 하나님의 눈으로 재소자들을 바라보기
2.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기
3. 이론보다 삶의 나눔으로 말씀 전하기

주의해야 할 단어

교도소, 국립호텔, 감옥, 형무소, 감방, 영여(간혀 있는 상태), 부자유한 몸, 징역, 죄를 지은 사람(죄인, 죄수), “여러분은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주의해야 할 질문

죄목, 수형기간, 구체적 가족관계, 학력, 사회적 지위, 교회 직분, 과거의 인생 역경 등

기도제목

1. 재소자들과 새사람사역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복음이 심겨지도록
2. 장거리 이동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도록

고 한다. 담장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면 BEE KOREA에서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할 것이다. 마귀들이 나를 타락의 길로 유혹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것이다. 교회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한다.

나에게도 사명이 생겼다. BEE KOREA 목사님과 권사님의 가르침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다. 그동안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다.

/ 정사랑 성도(소망교도소)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결혼준비 돕는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이 5.2건으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결혼한 지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율이 22.4%나 된다고 한다. 부부 4쌍 중 1쌍이 채 4년도 함께 하지 못하고 갈라선다는 의미다. 핑크빛 나날을 그리기에도 모자란 신혼부부들이 왜 갈라서야만 할까?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결혼예비학교에서 예비부부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조명은 집사(아가페교회)는 올해 6월 2일 딸(정선영, 27세)을 결혼시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딸에게 결혼예비학교를 추천한 것이다. 조명은 집사도 30년 전(1989년 6월) 결혼을 준비하면서 친정아버지(조만제, 경희대 명예교수)로부터 결혼예비학교를 추천받았다. 조 집사는 1989년 27기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했다. 당시에는 결혼예비학교가 생긴지 1년밖에 안된 초창기였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결혼예비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다. 친정아버지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30년이나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요. 결혼을 주 안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결혼 이기에 함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반쪽임을 결혼예비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올해 6월 딸이 결혼했다. 딸이 스위스에 거주 중이라 시차도 맞지 않았지만 조 집사는 딸에게 결혼예비학교에 꼭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한 딸 정선영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다.

“결혼예비학교는 정말 유익했어요. 결혼생활 초기에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결혼 전에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도 떨쳐버릴 수 있었고요. 준비된 결혼을 한 덕분에 안심과 위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조명은 집사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그랬고, 제가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딸이 손주한테 결혼예비학교를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잖아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안다면 쉽게 이혼할 수 없어요.”

많은 예비부부들이 꼭 결혼예비학교를 듣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유사론 자매(관악감리교회)에게도 결혼예비학교는 특별했다. 그래서 내년 3월 결혼예정인 동생에게 결혼예비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란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예비학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비부부에게 이보다 좋은 결혼준비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사론 자매는 결혼 5년차다. 지금까지도 결혼예비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혼예비학교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부부개념을 만들어 적었는데 그때 남편과 약속했어요. 매년 결혼기념일에 그것을 꺼내서 확인하자고요. 결혼기념일마다 결혼준비하며 새겼던 마음을 되새기고 있어요.”

유사론 자매는 동생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지인들에게도 결혼예비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다들 결혼예비학교가 좋은 건 아는데 시간내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도 꼭 시간을 내서 결혼예비학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혼준비는 결혼예비학교에서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부부의 건강한 연합을 도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1988년 11월 26일 1기

결혼예비학교가 시작된 이래 30년 동안 예비부부 4만 명(2만 쌍)이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했다.

결혼예비학교는 3주 동안 진행된다. ‘결혼의 성경적 원리’, ‘부부의 재정’, ‘너와 나의 다름의 축복’, ‘하나 됨의 비밀, 성(性)’,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가정의 영성 그리고 대화’ 등을 주제로 임형재, 김성진, 김의수, 이주호, 김성목, 한은경, 이주성, 이기복, 유영순, 최은영 등 국내 유수의 전문 강사진들이 강의한다.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한 부부 90% 이상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SBS 스페셜에서 방영한 ‘우리, 다시 결혼할까요?’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결혼예비학교 수료자 711쌍 중에서 단 3쌍만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고작 0.4%밖에 안 된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는 결혼예비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드러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결혼은 참 귀하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결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배우자와의 건강한 연합을 도와주는 결혼예비학교에서 결혼을 준비하자.

문의: 02-2078-3456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일정: 2027(11월 3, 10, 17일), 2037(12월 1, 8, 15일) 토요일 3회
장소: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장 EM홀
신청일: 2027기 10월 16일(화), 2037기 11월 6일(화)

등록 절차

- ①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신청 당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신청순 마감)
- ③ 신청 당일 오후 1시까지 수강료 입금 완료
- ④ ‘커플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duranno1980@naver.com) 송부
- ⑤ 네이버카페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회원 가입 후 ‘기 커플명/수강신청완료’로 등업 신청

수료자 간증

살아갈 방향 제시해주는 나침반

우리는 6년 동안 연애했다. 그런데 짧지 않은 연애기간이었음에도 결혼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싸웠다.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믿음 안에서 만났지만 신앙과는 별개였다. 그런데 결혼예비학교를 듣고 알게 되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맞춰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귀한 메시지를 말씀 안에서 설명해 주니까 더 와 닿고 이해하기 쉬웠다. 결혼예비학교를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결혼예비학교는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결혼예비학교 수업을 듣고 싶다.
/ 박주현, 김유진 커플(일일 11기 수료)

진짜 결혼 준비

우리 부부가 결혼예비학교를 듣지 않았다면 외부적인 요소들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결혼을 준비했을 것이다. 결혼예비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결혼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만남부터 연합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 계획하셨다.

결혼예비학교를 통해서 진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결혼의 소중함과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진정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혼예비학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 김선영, 김신아 부부(17기 수료)

전문가 기고 감사의 가치와 의미

그리스도의 향기 ‘감사’

예수에게 받은 ‘좋은 일’ 기억하고, 표현하기



한건수 성도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감사연구소 G.LAP 대표)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표현할 때 ‘소금’, ‘빛’, ‘향기’, ‘청지기’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찬양 제목으로도 익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다.

향기는 ‘향기 향(香)과 ‘기운 기(氣)의 뜻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의미한다. 개역개정 버전 성경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70회 정도 나온다. ‘향기로운 번제’(민 28:27), ‘네 기름이 향기로워’(아 1:3), ‘향기로운 제물’(빌 4:18)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라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형제와 캔 커피 그리고 감사(感謝)

비 오는 날 두 아이가 파출소 앞에서 들어가기를 망설인다.

“형이 먼저 들어가.”

“부끄러워. 네가 먼저 들어가.”

머뭇거리는 두 아이를 보고 한 경찰이 나와서 물었다.

“무슨 일이니?”

두 아이가 파출소에 들어와서 내민 것은 검정색 비닐봉지. 그 안에는 캔 커피 5개가 담겨 있었다. 추운 날씨 등하옷길 건넌목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통정리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경찰관 아저씨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캔 커피를 사왔다고 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민 두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캔 커피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경찰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 일은 울산의 한 파출소에 설치된 CCTV에 담긴 스토리로,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뉴스에 나오는 등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두 아이의 고마움의 표현은 그 마음을 받는 경찰과 간접적으로 사연을 접한 모든 사람에게 추운 겨울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향기였다. 두 아이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감사’(感謝)이다.



“좋은 일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은 병들어 온전한 치료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예배이다.”

두 아이가 보여준 감사는 나이, 종교, 지역, 이념과 같은 장벽을 넘어 은은한 향기처럼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非)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신학을 넘어 긍정심리학에서도 수십 년 동안 감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감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개인적 연구 범위를 넘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심리학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도 이를 증명해주는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까? 필립 왓킨스 박사는 감사에 대해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이것이 외부 대상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선 일상에서 자신에게 좋은(good)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줄 안다. 필자가 한 워크숍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일상의 좋은 일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어제 엄마가 회식해서 게임을 실패했다”고 적은 글을 본 기억이 있다. 엄마의 회식이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 의식적으로 조금만 넓게 보면 타인에게서 온 좋은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 즉,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하는 ‘감사훈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쉬운 ‘감사훈련’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잠시 눈을 감고 5분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좋았던 일을 떠올려보라.

2 그것을 노트에 적어보라(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밥을 해주신 어머니 고맙습니다”)

3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라.

감사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일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감사하다(Thank)’의 어원이 ‘생각하다(Think)’의 어원과 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추수 감사절이 되면 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을 설교로 듣게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신약에서 딱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차례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신 7:18)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것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하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일상에서 훈련해야 한다. 이 훈련이 바로 예배이다.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예배의 핵심이 감사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며 제사 즉, 예배의 참 의미를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셨다. 그때 한 여인이 그 환경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값비싼 기름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그 순간 그 자리는 향기로 가득해지고 그 자리를 덮고 있었던 좋지 않은 냄새는 향유로 인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제자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즉각적으로 분개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이유를 설명하시며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 여인의 감사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년을 두어 달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 일상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좋은 일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은 시몬의 집과 같이 병들어 온전한 치료가 필요한 이 시대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창립 20주년

오늘(14일) 기념예배, 15일과 22일 세미나 개최

회복사역본부에서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세미나 ‘명의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조현병과 조울증을 치유 받고 싶은 환자나 그 가족,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창립 20주년 기념예배는 오늘(14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세미나 ‘명의를 만나다’는 10월

15일과 22일 월요일 오후 6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세미나에서는 15일 김철웅 소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이 ‘조현병에 대한 생각의 변화’, ‘회복을 위한 치료전략’을, 22일 황태연 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이 ‘조울증의 이해와 치료’, ‘행복한 삶을 위한 회복과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박성규 장로(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조현병과 조울증은 순모임과 치유 활동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념예배와 세미나에 와서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270-756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청소년부모성장학교 개강

11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부모성장학교가 개강한다. 1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청소년(중학생 2학년~고등학생 2학년)과 그 부모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 5만 원, 부모 8만 원.

문의: 김정호 전도사 010-3215-5801

참가자 간증

내 삶을 바꿔 주신 하나님



전하성 청년
(Pole2공동체)

청소년부모성장학교에 참가할 것을 권유 받았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앞섰다. 당시에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참가했다. 매주 청소년부모성장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나날 때마다 공허했던 내 마음에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만에 부모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도 가게 되었다. 해외 아웃리치에서 현지 학교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2~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교무실에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동안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청소년부모성장학교 덕분이다. 내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청소년부모성장학교의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다. 내가 섬기게 될 청소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무척 기대된다.

하나원 동창생 만남의 잔치

여성 탈북민 60여 명 참석 ... “가족을 만난 것 같다”

지난 9일 사회선교부 하나원사역팀에서 주최하는 하나원 동창생 만남의 잔치 ‘DREAM AGAIN’이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막 올랐다. 하나원을 수료한 지 2~3년 된 여성 탈북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김미숙(가명)씨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가족을 만난 것 같다”며 기뻐했다.

/ 이소정 기자

이혼자행복학교 개강

32기 이혼자행복학교가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등을 주제로 최승구 목사, 손정훈 목사 등이 강의한다. 이혼 혹은 별거 위기에 놓인 부부, 이혼한 부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식대 포함/자녀 3만 원)이다.

문의: 010-2539-5665

대학부 ‘희망노트’ 막 오른다

10월 17일 포항 한동대학교

오는 17일 대학부가 주최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 ‘희망노트’가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에서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에 막 오른다. 이날 희망노트에는 한동대학교 재학생 3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사는 최성민 목

사(온누리교회)이고, 특별게스트는 가수 김신영(그룹 Monni), CCM 가수 지미선이다.

희망노트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집회다.

양재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스쿨이 개강한다. 오늘(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된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인류의 기원과 진화론 바로 알기’, ‘노아 홍수 사건

과 화석과 지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사랑을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당일등록도 가능하다.

문의: 010-8906-4940

INTO 부모교실 저녁반 개강

INTO 부모교실 저녁반이 10월 31일 저녁 7시 동빙고 근린공원 기독교 문화전시관에서 개강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누구인가?’, ‘정욕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8가지 성격유형’, ‘영적전쟁’, ‘올바른 가치관’ 등의 주제로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사는 하신주 선교사(워싱턴 온누리교회 차세대 디렉터)다. 등록은 10월 24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등록금은 7만 원.

문의: 010-9291-838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0월 세미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 자기돌봄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HS)’과 자기돌봄 세미나를 개강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미나는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2층)에서 열린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 및 큐티 강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12만 원이다.

문의: 02-2078-3279

기독교상담학과 ‘자기돌봄’ 세미나는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 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3층 기쁨홀에서 열린다. ‘자기돌봄 태도’, ‘행복한 경계선’, ‘감정 정화하기’, ‘분노조절과 자기돌봄’, ‘상처 난 나 돌보기’, ‘불안과 자기돌봄’을 주제로 김덕범 부원장(한국가족사랑연구원)이 강의한다. 회비는 34만 원.

문의: 02-2078-3456



후쿠오카 기 · 도 · 제 · 목

- 10월 1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 10월 16일(화) 100개의 협력교회가 세워지도록
- 10월 17일(수) 한일 참가자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담히기를
- 10월 18일(목)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시기를
- 10월 19일(금) 출연진들과 함께하셔서 담력과 능력을 부여주시길
- 10월 20일(토) 스태프들이 물 떠온 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 10월 21일(주일) 날씨, 안전, 음식, 교통, 집회 모든 과정 주관하시길

■ 이혼자행복학교 스태프 간증



/ 나지원 총무(이혼자행복학교)

이혼자행복학교는 응급실

2009년 가을 이혼자행복학교를 처음 접하게 됐다. 2011년부터는 이혼자행복학교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이혼자를 위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새로웠다. 교회 안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사실 이혼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은 이혼자들이 이혼자행복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얻고 있다. 많은 스태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스태프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혼자행복학교에서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강의를 듣는다. 강의 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강의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원들과 나눈다. 많은 이혼자들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눔 시간에 꺼낸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준다.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혼자행복학교는 응급실 같은 곳이다. 아파하는 이혼자들이 와서 5주 동안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간다. 스태프들은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많은 분들이 이혼자행복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다. 나 역시 이혼자행복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지금의 남편과의 재혼이다.

많은 분들이 이혼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혼자행복학교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한다. 스태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이혼자행복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준다. 자신들의 경험도 들려준다. 이혼자행복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다고 간증도 한다.

“저도 이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혼으로 인한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었어요.”

이러한 공감과 격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앞으로 재혼자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면 더 이상 치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재이혼율이 높다. 부부 사이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이혼자행복학교가 더 많은 이혼자들이 소망을 얻어 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문의: 010-2539-5665

■ 내적치유학교 스태프 간증



/ 정용모 팀장(내적치유학교)

풍성한 은혜, 놀라운 치유

내적치유학교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옛 자아와 구습을 버리게 한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적치유학교가 설립된 목적이다.

내적치유학교는 지난 15년 동안 총 5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약 5천여 명이 내적치유학교를 수료했다. 내적치유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 다시 스태프로 섬기는 일도 적지 않다. 많은 스태프들이 내적치유학교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

어느 날 내적치유학교를 함께 섬기고 있는 전은수 자매가 받은 은혜를 나눠줬다. 전은수 자매는 내적치유학교를 받기 전에는 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적치유학교를 통해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전은수 자매는 내적치유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내적치유학교는 사랑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이나 치유의 은혜를 나눠주기 원하시는 분,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내적치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57기 내적치유학교가 12월 7일 개강한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적치유학교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상담이나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57기 내적치유학교 개강
일정: 12월 7일~9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문의: 010-6330-7634

■ OBC 갈라디아서 스태프 간증



/ 강필선 집사(OBC 갈라디아서)

종에서 아들이 되는 자유

지난 2013년 교회에 체계적인 성경공부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 바이블 클럽(이하 OBC)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무척 행복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등록했다. 내가 처음 접한 과목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다. 당시 OBC 교재들(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성품)은 BEE KOREA에서 나온 교재였다. 나는 탁월하게 정리된 교재의 매력에 푹 빠졌다. 나는 7주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말씀공부가 너무 좋아서 OBC 과정 수료 후에는 스태프로 섬겼다. 지금도 공동체 OBC 팀장인 남편을 도와 섬기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온비아 갈라디아서를 섬기고 있다. 매 학기마다 OBC의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몇 번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교리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교리에 대한 이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천적인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

나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봤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OBC 갈라디아서를 수강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삶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교재 서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당신의 삶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 성령수련회 간증



/ 차상윤 성도(신용산공동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요즘 개인적인 문제로 답답함을 느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다.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다. 주위에서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나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다.

나는 이 평안이 성령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성령수련회에 참가했다.

성령수련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매우 은혜로웠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강의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구조화됐다.

목사님이 전하시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방이 막혀 있어 바라볼 것이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허락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다.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렸다. 마지막 기도회 때는 펄펄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나를 만져주시는 파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빌 4:6-7).

성령수련회에서 들은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성령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 귀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주신 목사님과 성령수련회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성령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확인했다. 앞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장로칼럼

교회와 세상 이어주는 Bridge



김웅배 장로
(브릿지33+공동체)

나는 여의도에 살고 있다. 여의도는 한강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이다. 그곳에는 강북단과 강남단을 연결해 주는 마포대교가 있다. 매일 이 다리를 건너면서 감사를 느낀다. 만일 이 다리가 없었다면

여의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선배와 후배가 믿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눔과 동역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계승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믿음의 다리 역할을 ‘브릿지33+공동체’가 하고 있다.

2007년 3월 브릿지33+공동체가 창설됐다. 브릿지33+공동체는 33세 이상 싱글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Bridge’, ‘청년과 장년 세대를 연결해주는 Bridge’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브릿지33+공동체를 통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많은 Bridge가 세워졌다. 브릿지33+공동체는 세대를 연결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브릿지33+공동체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성숙하고 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브릿지33+공동체는 안산M센터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도와 봉사를 하고 있

다. ‘천사의 집’, ‘신망원’ 등지에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금호사역, 환자들을 위로하는 병원사역, 국내외 아웃리치를 통한 지역교회와 지역주민 섬김, 일본 교회의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복음 전파 등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새가족 교육, 일대일 제자양육, 리더십 양성을 위한 예비순장교육, 수련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양육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공동체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다. 또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지역공동체로 파송되기도 한다.

나는 1년 전부터 세상 속에서도 별도로 떨어져 있는 청년들의 집단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에도 참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장병들이 CGNTV에서 제작한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세례를 받기를 자청한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세례식에서 장병들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보면서 나 또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제대 후에도 믿음의 열정을 이어가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10여 년 전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청년사역에 헌신하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까지 내가 청년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도 브릿지33+공동체와 군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사랑과 복음의 브릿지(Bridge)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주저 말고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오세요”



최혜경 권사
(한마음정신회복예배)

2000년 나는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삶에 지치고 늘 힘들어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차준구 장로님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알게 됐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는 나와 같이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가졌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나는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당시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안아 주셨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주셨다. 나는 그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럽고 창피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

니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다. 그래서 환우와 가족들에게 정신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나도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정신질환은 크게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나뉜다. 신경증은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다. 반면 정신병은 약물과 의학적 치료가 수반되어야 하는 질환이다. 우울, 불안, 강박 등은 신경증에 해당된다. 증상에 따라 우울도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충분한 심리치료 또는 상담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병이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더 빨랐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많다. 바로 조현병, 조울증 환우들이다.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은 신경증에 걸린 환우들에 비해 고통이 크다.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 조현병, 조울증에 걸린 환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스태프 중에는 나처럼 우울증에서 회복되었거나 조울증, 조현병에서 회복되어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받은 사랑을 아직 병중에 있거나 회복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있다.

정신질환은 극복하기 어려운 병이 아니다. 세 가지만 유념하면 된다. 첫째, 병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셋째,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체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김진아 전도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신앙의 추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추억에 대해 생각해봤다.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은 대부분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어린 시절, 주일 아침마다 친구 집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혹은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나올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 했다. 딱딱한 교회 장의자에 친구와 마주 보고 누워 소곤소곤 이야기 하며 잠들었던 여름성경학교의 추억도 떠오른다. 어른들이 교회 부흥회에 가면 교회 마당에서 친

구들끼리 모여 팥따먹기와 술래잡기를 했었다. 겨울에는 온 교인이 함께 새벽송을 부르며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별식을 만드는 날에는 제일 예쁜 모양의 음식을 골라 목사님께 먼저 가져다 드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를 드리면 나는 탁아를 맡아 어린이들을 보살펴 줬다. 이 모든 기억들이 내 안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차세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갖게 될까 생각해봤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추억을 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

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 교회에 가면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다.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교회 안에 가득했었다.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의 격려를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신앙의 추억도 교회 안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세대는 기성세대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이들은 따뜻한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심어주고 거두려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따스한 눈빛과 손길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건 어떨까?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나의 기억이 정겨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를 가르치기보다 그냥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쌓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아름답고 따스한 신앙의 추억을 가진 아이들이 다음세대에 가득하기를 꿈꾸며 또 하나의 신앙의 추억을 쌓는다.

신앙의 추억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바로 피로연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음식을 먹는 신랑신부는 없습니다. 신랑신부 가족들도 먹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기쁨의 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기에 절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금식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이 없을 때입니다. 신랑신부가 싸워서 마음이 아플 때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에도 금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운동력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옷으로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새로운 옷감 조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21절).

새로운 옷감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습니다. 옛 옷감은 탄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옛 옷을 고치기 위해 새 옷감을 갖다 대면 새 옷감도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새 옷을 입어야지 옛 옷을 고치려고 새 옷감을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력, 영적 운동력을 옛 옷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 옷은 망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옷과 같은 문화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려나 유대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복음을 그들의 문화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것을 깨뜨리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싸움은 세상의 옷, 옛 옷에 복음을 가두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옷감과 같아서 그 새 옷감에 맞는 새 옷으로 짜야 합니다. 교회가 옛 문화를 존속시키는 기관이 된다면 옛 문화와 함께 죽어갑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다 보면 교회가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새로운 포도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22절).

성경에는 ‘새 포도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 포도즙’입니다. 왜냐하면 가죽부대에 넣기 전 상태는 포도즙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즙이 가죽부대에 담겨서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듯이 포도즙을 담가서 생활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죽부대에 많은 포도를 넣고 올라가서 밟았습니다. 그러면 밀로 포도즙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발효되면서 팽창합니다. 새 포도주는 팽창하는 힘이 있어서 가죽부대는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늘어났다 줄었다 한 가죽부대는 늘어날 수 없어서 팽창하는 가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포도즙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부활의 역사는 팽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팽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을 흔히 적용할 때 ‘새로운 조직과 변화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는 새 포도즙이 너희 안에 있는가? 만일 새 포도즙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 터져버리는 것이 있다면 잘 터진 것이다. 옛 부대는 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품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옛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새 부대입니다. 가죽부대가 아니라 포도즙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왜 운동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새 옷감과 같이 당기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교회의 운동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즙보다 가죽부대가 더 중요하고, 새 옷감보다 옛 옷이 중요하고, 신랑신부의 결혼보다 주변이 더 중요한 것이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옛 옷을 과감하게 벗고 새 옷감 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옛 가죽부대가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죽부대를 날마다 준비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고, 능력 있게 날마다 팽창하고,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생각해봅시다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박성덕 소장
(정신과 전문의, 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나는 부부상담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자주 고민했다. 아마도 한국 가정에 부부의 삶이 없다는 것이 핵심문제가 아닐까 싶다.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사위, 아들, 딸은 있지만 부부가 없다. 남자, 아버지, 아들의 역할을 남편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다. 여자, 어머니, 딸이 가진 속성을 아내의 역할로 생각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보편적으로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감당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부부의 역할로 생각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

의되지 않았다.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과거 충효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하면서 가정에 사랑이 사라졌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면 팔불출이라고 불렀다. 정책적으로도 부부의 사랑을 막았다. 하늘인 남자와 땅인 여자는 동등함조차 갖지 못했다. 효도라는 도리에 가려서 부부의 사랑을 불효처럼 다루었다. 도리만 강조되고, 부부의 사랑을 금했고, 심지어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자녀를 향한 사랑 표현도 자유롭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낮추고 폄하하는 것을 겸손의 미덕으로 여겼다. 정말 가슴 아픈 한국 가정의 초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창 2:24).

성경은 부부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결혼과 함께 오히려 부모와의 연합을 강조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연합의 개념이 아예 없었다. 배우자와의 연합은 꿈꿀 수 없었다. 효도가 강조되니 부모중심의 가정이

부부가 연합해야 가정이 산다

었다. 이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내가 이혼을 당하는 일곱 가지 이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시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됐다. 여자의 질투 또한 이혼사유로 치부됐다. 이는 축첩제도를 인정하는 수단이 됐다. 여자가 심한 질병에 걸리면 위로와 치료가 아니라 후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박을 맞았다. 말이 많아도 이혼 당하니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칠거지악 어디에도 부부의 사랑과 연관된 내용은 없다. 부부는 서로가 가장 가까워야 할 대상인데도 아무런 대화도, 인간다운 삶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유교는 효도를 위해서 부부가 아닌 아들과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 부자는 친하고(父子有親, 부자유친), 부부는 법도가 있어야 한다(夫婦有別, 부부유별)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신다.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며, 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부의 연합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도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결혼 전에 듬뿍 받고,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뜻이다.

유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효도라면, 기독교는 ‘부부연합’으로 하는 효도이다. 그래서 고부갈등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효도가 아닌 부부의 연합이다. 효도를 강조할 때 고부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미궁에 빠져든다. 고부갈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상담실을 찾은 어느 40대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다.

“남편이 효자이기를 포기하고 제게 다가오니까 오히려 저는 효부가 되어가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연합해야 진정한 가정이 된다. 부부가 연합할 때 부모와 자녀에게 줄 새 힘이 생긴다.

지금 한국 가정은 실종되었던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다.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바로 연합이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부부의 주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14 **온누리신론**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십대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스페인어예배 14:00

도국교육관 온유홀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톡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6

안산M센터 교사 및 반주자 모집

교사: 차세대를 사랑으로 섬기실 분

반주자: 피아노, 기타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두란노서원 정기구독센터 직원 채용

공고

모집: 정기구독센터 팀원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

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OSOM 장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2019년 2월 18일~6월 7일(16주간)

마감: 2019년 1월 21일까지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터키-그리스 편: 2019년 7월 26일~8월 3일

터키-그리스-산토리니 편: 2019년 7월 26

일~8월 4일

이스라엘 편: 2019년 7월 20일~26일

문의: 010-4902-1022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국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국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국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국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국1관 꿈아일랜드(B동 1층)

유년부: 도국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국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국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국1관 기쁨홀(A동 3층)

도국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국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국1관 충성홀(B동 2층)

도국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국2관(중대부고 강당)

도국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국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국1관 기쁨홀(A동 3층)

도국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국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GNTV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GNTV는 기독교인과 다음 세대는 물론 비기독교인도 볼 수 있는 복음 콘텐츠로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예수님의 온기 36.5°>

예수님의 온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나눕니다.

10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

KNOCK <SNS 드라마>

재미와 감동을 담은 새로운 SNS 드라마.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공감 콘텐츠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11월 퍼블리싱 예정

연작 드라마 <고고송>

사랑을 모르던 주인공의 회복과 성장 드라마.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로
복음을 널리 전합니다.

12월 방송 예정